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25일 월요일 음 6월 27일 (4물)

백록담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4°C, 낮 최고기온은 29-30°C로 예상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san, Gosan, and Seogwi.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식중독지수 주의,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067-131>

내일 구름 많음 24/30°C, 모레 구름 많음 25/30°C

월드뉴스

인니 구제역 확산에 호주가 긴장

감염 시 73조원 시장 피해 예상

인도네시아에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이웃 나라인 호주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 로마의 가족 판매장. 연합뉴스

국가 비상 동물 질병 감시 핫라인으로 연락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이 정도 조치는 부족하다며 인도네시아에서 호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가 극도로 긴장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구제역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문미숙 경제산업부국장

제주산 월동채소류의 공급과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평년에도 자주 반복됐던 채소류의 '풍년의 역설'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소비위축까지 더해지며 올 봄에도 양파, 양배추, 당근 가격이 폭락해 상당 면적을 갈아엎어야 했다.

지난 5월 제주도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12개 채소류의 재배의향을

제주 마늘 밭상·당근 밭상을 상상한다

조사했다니 월동무, 당근, 양배추 과잉생산이 또 우려돼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월동무 재배 예상면적은 5424ha로, 전년 재배면적(5488ha)과 비슷했다.

제주산 채소류의 공급과잉은 이제 관행처럼 굳어진 시장격리 외에 다른 해법을 요구받고 있음을 제주도 농업인들은 직시해야 한다.

전, 식량 안보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방향성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 수십만㎡를 경작하는 대농이나 3300㎡ 안팎의 소농이나 출하한 농산물을 모두 육지부 출하에 집중하는 현재의 상황을 단교 대농은 조직화하고 통합마케팅조직을 강화해 보다 강력한 시장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고령이나 영세농, 귀농인이 중심으로 참여하는 로컬푸드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큰 틀에서 농업·농촌이 가진 생태적·경관적 가치 보

거래로 탄소배출량을 줄인 건강한 농산물로 환경보호에도 일조하게 된다. 나아가 연중 다품목 소량생산 체계가 구축되고, 가공·유통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이들 작물의 기능성 연구에서부터 가공품 생산, 음식 레시피 개발로 연결시키면 일명 '꾸러미 밭상'을 정기적으로 받아먹는 전국의 소비층을 공략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열린마당

청렴문화 위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 강화



김순애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가 시행 5년째에 접어들었다. 공익제보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과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위원회)와 공익 신고센터(도 청렴혁신 담당관)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적 제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구별이 어려워 신고 시 혼란을 초래하거나 신변보호·보상체계 등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및 지원이 부족했다.

조례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

거주불명자로 등록됐다면 지금 재등록하자



현순애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거주불명등록제도'란 무단전출자 직권말소에 따른 선거권 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의 각종 사회혜택으로 배제되는 것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09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사망 및 국적 상실 등으로 미신고 거주불명자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파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서귀포시에서는 이달 19일부터 8월 말까지 주민등

록 직권말소 등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와 수급사실 등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말소 여부 등을 토대로 사실조사를 실시해 생존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등록 공고 등을 거쳐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며 또한 출국한지 5년이 지난 해외출국자도 직권말소 대상이다. 단, 공고기간 내 생존이 확인된 경우나 재등록 의사가 없을 때에는 거주불명 등록이 유지된다.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현황과 주민등록 간 정확성을 높여 주민등록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분이 있으면 재등록 하시기를 안내드린다.

Advertisement for 'All Product Quality Inspection' (모든품종 감괄(묘)분양) by Seogwi Jeongmyo.

Advertisement for 'Quality Excellent Domestic Seedlings'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by Purenjigae Nonghye.

Advertisement for 'Inspection Item List' (감괄묘목 분양) by Minseongjeongmyo.

Advertisement for 'Jeju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제주 통신기반 구축) by Hanra Jeonsil.